

2-0-2-4

PLAT

F O R M

O E N

S T U

D I O

2024 플랫폼 오픈스튜디오

인천아트플랫폼
E동 및 중앙광장
INCHEON ART PLATFORM
ARTIST STUDIOS,
IAP SQUARE

고혜지 · 김보경 · 김아람 · 소미정
송석우 · 양은경 · 정지원 · 최박
마찬호 · 안보미 · 염지희

KO HYUNJI · KIM BOKYUNG
KIM RAHMI · SOH MEEJUNG
SONG SEOKWOO · YANG EUNKYUNG
JUNG JIHYUN · HEE VAAK
MA CHANHO · AHN BOMI
YEOM JIHEE



2-0-2-4

2024 플랫폼 오픈스튜디오

인천아트플랫폼
E동 및 중앙광장
INCHEON ART PLATFORM
ARTIST STUDIOS,
IAP SQUARE

PLAT

F FLOORM

OPEN

STU

DIO

고원지 · 김보경 · 김아람 · 소미정
송석우 · 양은경 · 정지현 · 최박
마찬호 · 안보미 · 염지희

KO HYUNJI · KIM BOKYUNG
KIM RAHMI · SOH MEEJUNG
SONG SEOKWOO · YANG EUNKYUNG
JUNG JIHYUN · HEE VAAK
MA CHANHO · AHN BOMI
YEOM JIHEE

INCHEON ART PLATFORM 2024 PLATFORM OPEN STUDIO 인천아트플랫폼 2024 플랫폼 오픈스튜디오

고현지 · 김보경 · 김아람 · 마찬호 · 소미정

송석우 · 안보미 · 양은경 · 정지현 · 희박 · 염지희

KO HYUNJI · KIM BOKYUNG · KIM RAHM · MA CHANHO

SOH MEEJUNG · SONG SEOKWOO · AHN BOMI

YANG EUNKYUNG · JUNG JIHYUN · HEE VAAK · YEOM JIHEE

일러두기

1. 국문명은 가나다 순을 기본으로 하되, 스튜디오 순으로 정리합니다.
2. 작가 이름의 성과 이름 순서는 각 표기법을 따르며 성은 대문자로 표기했습니다.
3. 작품 정보는 작품명, 제작 연도, 매체 및 기법, 규격 순으로 표기했습니다.
4. 도판의 작품 정보는 세로 × 가로(평면), 세로 × 가로 × 깊이(입체) 순으로 표기했습니다.
5. 작품명은 <국문 작품명>(연도), 전시명은 <전시명>(장소, 지역, 연도), 공연명 및 워크숍 등 프로그램 명은 <공연명 / 프로그램 명>(장소, 지역, 연도)으로 표기했습니다.

안내사항

1. 오픈스튜디오 기간 동안 모든 스튜디오는 개방되며, 입주 예술가들이 오후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주합니다.
2. 11월 8일(금)에는 오프닝 및 네트워킹 파티 준비로 인해 오후 5시 50분에 모든 스튜디오가 마감됩니다.
3. 행사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오픈스튜디오 인포메이션 또는 각 층에 계신 진행 요원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4. 쾌적한 관람 환경과 작품 보호를 위해 스튜디오 내 음식물 반입은 금지됩니다.
- *5. 전시된 작품은 눈으로만 감상해주시기 바라며, 만 14세 이하 어린이와 함께 방문하실 경우 작품을 만지지 않도록 손을 꼭 잡고 관람에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6. 스튜디오별로 상황에 따라 사진 및 영상 촬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과 참여가 예술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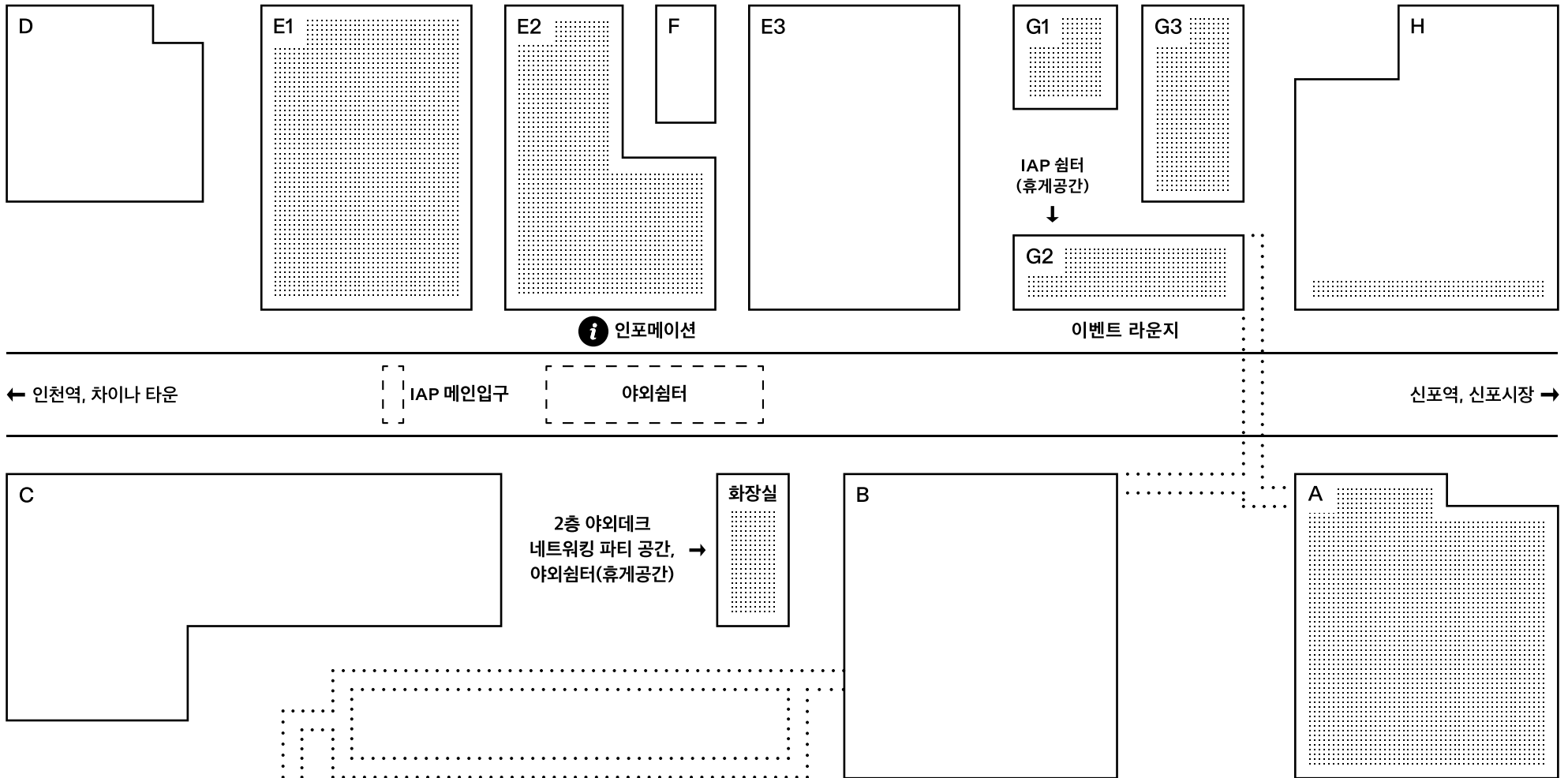
인천아트플랫폼은 여러 장르와 분야의 예술가들과 연구자에게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창작역량 강화를 위한 비평 및 연구 프로그램과 전시나 공연 등 창작발표를 지원하는 예술창작공간을 운영합니다. 2009년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올해 15년차에 접어든 예술창작공간을 통해, 약 550명이 넘는 입주 예술가들과 함께하며 역동적인 예술 창작활동을 지지해오고 있습니다.

<2024 플랫폼 오픈스튜디오>는 올해 신설된 <인천 청년예술가 스튜디오 지원사업>을 통해 선정된 인천의 젊은 예술가 10인의 작업을 조명합니다. 2024년도 <인천 청년예술가 스튜디오 지원사업> 입주 공모를 통해 선발된 시각예술, 공연예술, 다원예술 분야의 예술가는 올해 8월 인천아트플랫폼에 입주하여, 예술창작 공간을 거점으로 장르와 매체를 넘나드는 실험적이고 독창적인 예술적 실험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오픈스튜디오는 인천 지역의 다양한 배경을 가진 젊은 예술가들의 작업실을 개방해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창작의 과정과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예술가들의 사적인 작업실을 능동적인 아티스트-런-스페이스(Artist-run space)로 확장하여, 창작의 현장을 있는 그대로 공개합니다. 관람객은 완성된 작품뿐 아니라, 아직 공개되지 않은 작업들, 아이디어 스케치, 리서치 자료 등을 살펴보며 예술 창작의 내밀한 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각기 다른 매체로 다양한 창작 방식을 취하는 예술가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예술과 일상의 경계를 허물고 예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예술적 사유의 시간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INCHEON ART PLATFORM SPACE INFO

인천아트플랫폼 공간 안내



← 인천역, 차이나 타운

IAP 메인입구

야외쉼터

신포역, 신포시장 →

- A 인천생활문화센터
1F 교육실, 갤러리 디딤,
모임방 등
2F IAP 사무실(운영 파트)
- B 전시장 1
- C 공연장

- D IAP 아카이브관
IAP 사무실(시설관리 파트)
- E1 아티스트 스튜디오, 전시장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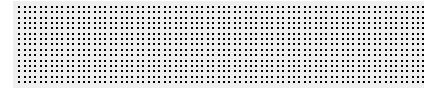
- E2 아티스트 스튜디오
- E3 아티스트 스튜디오,
프로젝트 스페이스 3
- F 게스트 레지던스

- G1 프로젝트 스페이스 2
- G2 공동 작업실
- G3 프로젝트 스페이스 2
- H 인천생활문화센터

STUDIO MAP

스튜디오 맵

시각예술부문



공연예술부문



다원예술부문



2024 인천미술 올해의 작가_청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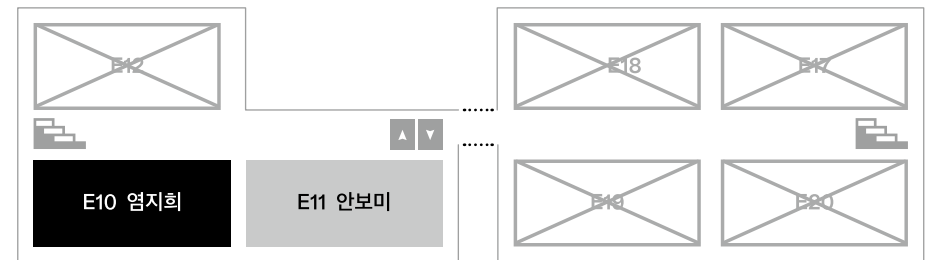


E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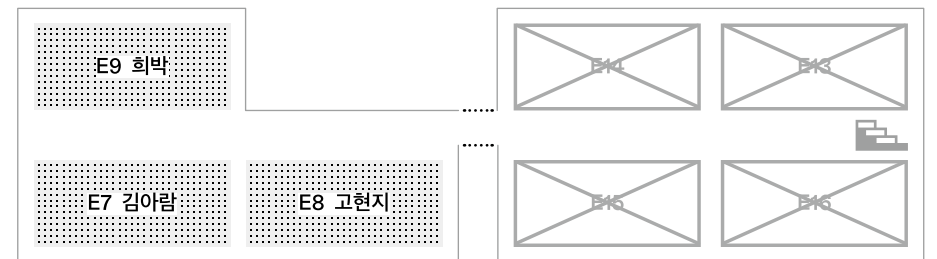
E2

E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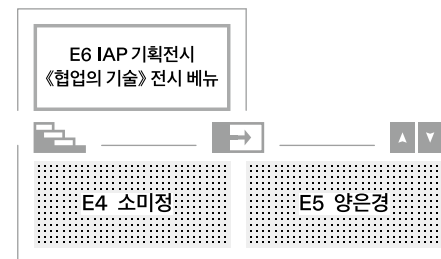
3F



2F



1F



PROGRAM SCHEDULE

프로그램 스케줄



11. 8. FRI

	11:00	12:00	13:00	14:00	15:00	16:00	17:00	18:00
E동 스튜디오		2024 플랫폼 오픈스튜디오		개막행사 18:00 — 18:20, IAP 중앙광장 야외테크		네트워킹 파티 18:20 — 20:20, IAP 중앙광장 야외테크		
중앙광장		[상설체험] 코인 연기방						
스튜디오 E-3		[상설체험] 예술당, 소원을 빌어요!						
A 교육실				[강연 프로그램] 작가를 위한 CV 읽기와 쓰기				
G1, G3 프로젝트 스페이스 1, 2		IAP 오픈스튜디오 연계 전시 《레이더: 세상을 감각하는 눈》						
B, E-6, D 전시장 1(B), 스튜디오 E-6, 아카이브관(D)		IAP 기획전시 《협업의 기술》						

11. 9. SAT — 11. 10. SUN

	11:00	12:00	13:00	14:00	15:00	16:00	17:00	18:00
E동 스튜디오		2024 플랫폼 오픈스튜디오						
야외 - IAP 일대		[상설체험] 코인 연기방						
스튜디오 E-3		[상설체험] 예술당, 소원을 빌어요!				[워크숍 프로그램] 한 올 한 올, 소망을 감아		
A 교육실			[워크숍 프로그램] 어린이 대상 영금영금, 교란종 되기					
H 1883 개항살롱			[워크숍 프로그램] 나의 푸른 흔적 주머니					
G1, G3 프로젝트 스페이스 1, 2		IAP 오픈스튜디오 연계 전시 《레이더: 세상을 감각하는 눈》						
B, E-6, D 전시장 1(B), 스튜디오 E-6, 아카이브관(D)		IAP 기획전시 《협업의 기술》						

2-0-2-4 PLATFORM

OPEN STUDIO

EVENT SCHEDULE 행사 일정

구분	행사(전시)명	진행장소	관람시간
오픈스튜디오	2024 플랫폼 오픈스튜디오	E동 스튜디오 및 중앙광장	금 - 일 12:00 - 18:00
강연 프로그램	작가를 위한 CV 읽기와 쓰기	A 교육실	금 14:00 - 16:00
	나의 푸른 흔적 주머니	H동 1층 및 야외 공간	토 - 일 13:00 - 15:00
워크숍 프로그램	어린이 대상 영금영금, 교란종 되기	A 교육실	토 - 일 13:00 - 15:00
연계 프로그램	한 올 한 올, 소망을 감아	스튜디오 E-3	토 - 일 16:00 - 18:00
	예술당, 소원을 빌어요!	스튜디오 E-3	금 12:00 - 18:00 토 - 일 12:00 - 16:00
상설체험 프로그램	코인 연기방	IAP 중앙광장	금 - 일 12:00 - 18:00
연계 전시	레이더: 세상을 감각하는 눈	G1, G3 프로젝트 스페이스 1, 2	화 - 일 11:00 - 18:00
IAP 기획 전시	협업의 기술	전시장 1(B), E-6, 아카이브 관(D)	화 - 일 11:00 - 18:00

OPEN STUDIO SCHEDULE

오픈스튜디오 연계 일정

강연 프로그램

작가를 위한 CV 읽기와 쓰기

작가의 경로를 한눈에 보여줄 수 있는 CV는 단순한 기록이 아닌, 작업 세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서사적으로 구성하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미술계에서 일반적으로 접하게 되는 작가의 CV는 '주요'(selected)라는 조건을 달아 선별된 목록으로서 제시됩니다. 신진 작가의 입장에서 이 목록은 그저 가치중립적인 정보의 나열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실은 작업 세계의 성장 과정을 내밀하게 담고 있는 하나의 지도입니다.

이 강연에서는 예술가의 이력을 단순한 정보 나열이 아닌 유기적으로 연결된 서사로서 바라보는 법을 탐구합니다. 몇몇 작가들의 CV를 살펴보면서 행간에 담긴 크고 작은 이야기들을 짚어보고, 이를 통해 텍스트의 나열에 불과한 CV가 어째서 작가의 작업 포트폴리오만큼이나 중요한 형식인지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없는 내용을 만들어서 CV에 채워넣을 수 없듯, 미술가로서의 활동상을 어떻게 그려 나갈지를 점검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진행일정 11/8(금), 14:00 — 16:00	진행장소 인천아트플랫폼 A동 1층 교육실	참여대상 작가 지망생 및 신진 예술가 참여인원 15명	준비물 개인 노트북 강연자 박정우
-----------------------------------	------------------------------	---	---------------------------------

강연자 소개
박정우 작가는 회화의 성찰적 인터페이스를 탐구하며, 작업과 더불어 글쓰기와 전시기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인전으로 《수금지화목토천해》(2021), 2인전 《플랫폼 2》(2023) 등이 있으며, 공동 기획으로 《Exit Exit》(2019)와 《Open Corridor》(2024)를 진행했습니다.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의 《이력서: 박미나와 Sasa[44]》(2023)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작가 이력서를 예술적 서사로 체계화하는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워크숍 프로그램

나의 푸른 흔적 주머니

‘나의 푸른 흔적 주머니’는 안보미 작가의 시아노타입(Cyanotype) 작업 기법을 활용한 프로그램입니다. 햇빛을 이용해 자신의 신체나 주변 물건을 기록하여 특별한 푸른빛의 주머니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 우천 시 실내 프로그램으로만 운영됩니다.

진행일정 11/9(토) — 11/10(일), 13:00 — 15:00	진행장소 인천아트플랫폼 H동 1층 및 야외 공간 준비물 소중한 물건이나 나를 상징하는 물건, 편안한 복장	참여대상 초등학생 — 성인 ※ 초등학교 저학년 보호자 동반 필수입니다.	참여인원 15명 참여작가 안보미
--	---	--	--------------------------------

어린이 대상 영금영금, 교란종 되기

내가 거북이가 된다면 어떤 등껍질을 가지고 있을까? ‘교란종 되기’는 외래종부터 교란종까지 다양한 거북이를 알아보며, 관찰을 통해 독창적인 등껍질 무늬와 모양을 만들어 보는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입니다. 참여자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교란종에 대한 고정된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형태의 교란종을 예술적 상상으로 구현해 볼 수 있습니다.

진행일정 11/9(토) — 11/10(일), 13:00 — 15:00	진행장소 인천아트플랫폼 A동 1층 교육실	참여대상 초등학생 1-6학년	참여인원 15명 참여작가 김아람
--	------------------------------	--------------------	--------------------------------

한 올 한 올, 소망을 감아

‘한 올 한 올, 소망을 감아’는 희박 작가의 작업을 만나본 후 작가의 작품 제작 방식을 활용하여 창작물을 만들어 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참여자들은 실을 땀고 꼬는 수행적 과정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진행일정 11/9(토) — 11/10(일), 16:00 — 18:00	진행장소 인천아트플랫폼 스튜디오 E-3	참여대상 초등학생 — 성인 ※ 초등학교 저학년 보호자 동반 필수입니다.	참여인원 10명 참여작가 희박
--	-----------------------------	--	-------------------------------

상설체험 프로그램

예술당, 소원을 빌어요!

‘예술당’은 희박 작가의 유년 시절 촉각적, 청각적 기억을 금줄로 시각화한 상설 체험 공간입니다. 참여자들은 나의 소망을 적어 금줄에 담아 볼 수 있습니다. ‘버리고 싶지만 버리지 못하는 애착 물건’을 금줄에 달아주시는 분들에게는 인천아트플랫폼 기념품으로 교환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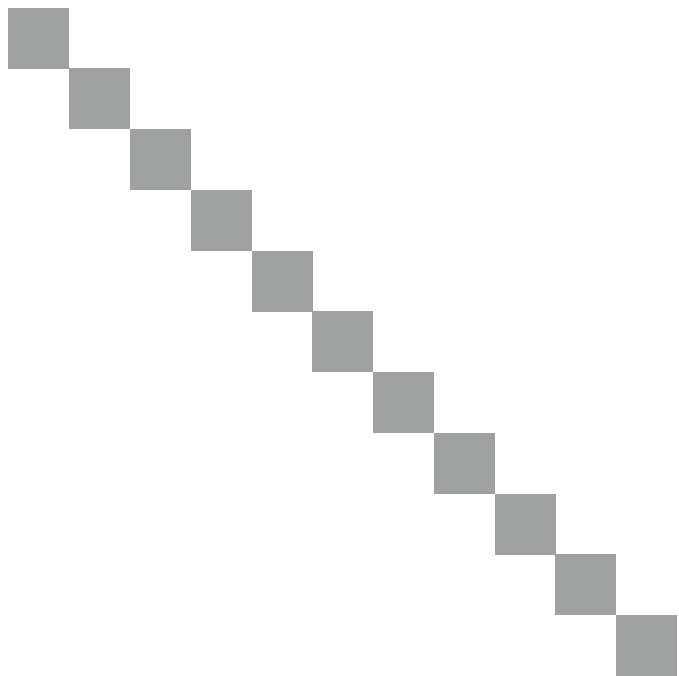
※ 물건은 추후 희박 작가의 작품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진행일정	진행장소	참여대상	참여작가
11/8(금) 12:00 — 18:00	인천아트플랫폼 스튜디오 E-3	오픈스튜디오 방문객	희박
11/9(토) — 11/10(일), 12:00 — 16:00			

코인 연기방

‘코인 연기방’은 마찬호 작가가 제시한 키워드 카드로 연기를 해보는 상설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연기 지도를 원하시는 분에 한하여 전문 예술 강사로부터 5분 연기 지도를 받아볼 수 있으며, 5분 연기 수강생들에게는 뽑기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는 ‘코인’으로 교환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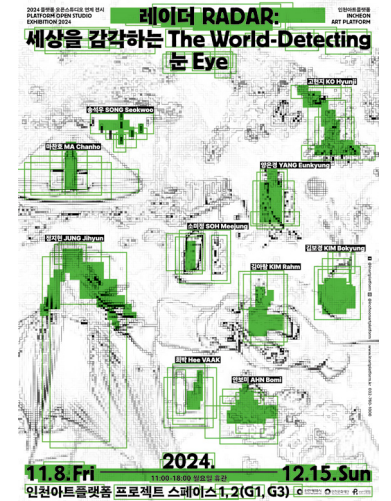
진행일정	진행장소	참여대상	참여작가
11/8(금) — 11/10(일), 12:00 — 18:00	인천아트플랫폼 중앙광장	오픈스튜디오 방문객	마찬호



오픈스튜디오 연계 전시

2024 인천아트플랫폼 오픈스튜디오 연계 전시

《레이더: 세상을 감각하는 눈》



진행기간	전시장소	참여작가	관람시간
11.8(금) — 12.15(일)	G1, G3 프로젝트 스페이스 1, 2	고현지, 김보경, 김아람, 마찬호, 소미정, 송석우, 안보미, 양은경, 정지현, 희박	화 — 일, 11:00 — 18:00, 매주 월요일 휴관 관람료 무료

인천아트플랫폼은 2024 오픈스튜디오 연계 전시의 일환으로 《레이더: 세상을 감각하는 눈》을 개최합니다. <인천 청년예술가 스튜디오 지원사업> 입주 예술가 10인이 참여하는 이번 전시는 회화, 조각, 사진, 영상, 연극 등 작가들의 다양한 장르의 작업을 소개하는 동시에, 레이더와 같이 세상의 이면을 감각해내고 탐험가와 연구자와 같은 방식으로 창작에 임하는 작가들의 작업 태도 또한 보여주고자 합니다.

2024 STUDIO SUPPORT PROGRAM FOR INCHEON YOUNG ARTISTS

2024 인천 청년예술가 스튜디오 지원사업 참여 입주 예술가

E-1	정지현	JUNG JIHYUN	20p
E-2	김보경	KIM BOKYUNG	21p
E-4	소미정	SOH MEEJUNG	22p
E-5	양은경	YANG EUNKYUNG	23p
E-7	김아람	KIM RAHM	24p
E-8	고현지	KO HYUNJI	25p
E-9	희박	HEE VAAK	26p
E-11	안보미	AHN BOMI	27p
E-21	마찬호	MA CHANHO	28p
E-22	송석우	SONG SEOKWOO	29p



〈2024 플랫폼 오픈스튜디오〉에서는 ‘2024 인천미술 올해의 작가’ 청년 부문에 선정된 엄지희 작가의 스튜디오를 특별히 공개하여, 관람객 여러분께 선정 작가의 작업 공간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2024 인천미술 올해의 작가_청년’에 선정된 엄지희 작가는 8월부터 인천아트플랫폼에 입주해 활발한 창작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 인천아트플랫폼 기획 전시의 일환으로 ‘인천미술 올해의 작가’ 선정 작가의 개인전이 열릴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정지현 JUNG JIHYUN

패닉룸

정지현은 특정 사물의 쓰임새와 형태를 통해 신체와 사물 간의 복합적인 상호 작용을 탐구하며, 일상 사물에 내재된 물리적 경험을 조형 작업으로 풀어낸다. 도구와 맞닿는 신체의 움직임과 그로 인한 통증을 소재로 신체를 묘사해왔으며, 최근에는 사물의 가학적 이미지와 신체가 교차하고 융합되는 방식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오픈스튜디오에서 작가는 작업실을 ‘패닉룸(Panic Room)’으로 탈바꿈시켜, 도피처이자 속박에서 오는 안정감을 품은 이중적인 공간을 선보인다. 이곳에서 관람자는 아상블라주(assemblage) 신체 조각을 통해 신체와 사물 간에 발생하는 긴장과 모순을 마주한다. 패닉룸(안전대피실)으로 변모한 스튜디오 오는 사물이 신체의 일부로 흡수되거나 신체를 구속하는 순간을 탐구하는 무대가 되며, 이 과정을 통해 관람자는 사물과 신체가 얽히고 재구성되는 새로운 관계를 발견하게 된다.

김보경 KIM BOKYUNG

비하인드 컷

김보경은 이미지의 재구성을 통해 사라지는 순간을 포착하려는 회화적 탐구를 지속해왔다. 시간 속에서 붙잡을 수 없는 찰나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공간의 이미지를 수집하는 작업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미련이라는 비물질적 정서를 담아내는 수행적 실천으로 이어진다. 모아진 이미지는 자르고 변형되어 새롭게 갱신되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해석과 의미가 중첩된 다층적 풍경이 드러난다.

이번 오픈스튜디오에서 작가는 개인전을 준비 과정에서 마주한 ‘비하인드 장면’을 작업실에 고스란히 펼쳐보인다. 작업실에 곳곳에 놓인 회화 작품과 다양한 매체 실험들, 그리고 메모들은 창작의 과도기에서 작가가 직면한 고민과 선택의 흔적을 반영한다. 관람자는 미완성의 작품과 작업 노트를 통해 예술적 결단의 순간과 창작의 흐름을 엿보며, 완성과 미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여정에 동참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은 창작이 고정된 결과물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재구성되는 창작의 과정을 작가와 관람자가 함께 나누는 순간이 될 것이다.



《패닉룸》(우석갤러리, 서울, 2023) 전시 전경.
Exhibition view of *Panic Room* (Woosuk Gallery, Seoul, 2023).



《쓰러질 듯 쓰러지지 않는 균형》(동작아트갤러리, 서울, 2023) 전시 전경.
Exhibition view of *The Balance that seems to be collapsing but stable of Installation in progress* (Dongjak Art Gallery, Seoul, 2023).

《무엇이 무엇으로 3》 스튜디오

소미정은 자연과의 밀접한 관계와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회화와 설치 작업을 이어오며, 돌과 나무 같은 자연 재료로 시간의 흐름과 순환을 탐구한다. 단순한 자연 재현을 넘어 인간과 자연, 창작과 순환의 복합적 관계를 사유하며 이를 예술적 실천으로 구현해왔다.

대표작 <무엇이 무엇으로>(2013-) 시리즈는 이러한 탐구의 집약체로, 돌을 쇠절구로 연마해 가루로 만든 후 화폭 위에서 본래의 형상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을 담는다. 이 작업은 자연의 해체와 복원을 동시에 포착하며, 미시적 관찰과 거시적 시각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수양과 성찰을 실현한다. 오픈스튜디오 기간 동안, 작가는 돌 작업과 함께 서울 온수공간에서 진행 중인 개인전 《무엇이 무엇으로 3》(온수공간, 서울, 2024)의 제작 과정을 공개한다.



〈무엇이 무엇으로〉, 2024, 종이에 가루가 된 돌로 채색 및 재가 된 나뭇가지로 채색, 가변설치.
Something to Something, 2024, pulverized stone and wood ash on paper, variable installation.

어느 날 누군가 너의 문을

양은경은 사회에서 배제되거나 보이지 않는 몸에 대한 이야기를 작업의 중심에 두고, 극영화와 다큐멘터리와 같은 매체를 활용해 다양한 실험을 전개해왔다. 장애와 정신적 낙인, 그리고 이름과 정체성의 부재로 인한 사회적 고립과 단절이라는 복잡한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며, 단순한 서사의 전달을 넘어서, 편집과 구성 과정에서 배제된 목소리들이 어떻게 다시 드러날 수 있는지를 탐구한다.

스튜디오 타이틀인 '어느 날 누군가 너의 문을'은 포르투갈 시인 페르난두 페소아(Fernando PESSOA, 1888~1935)의 시에서 영감을 받아, 문을 여는 감각을 중심으로 확장된 프로젝트이다. 이 작업은 카메라(녹화)와 프로젝터(재생)의 초점거리를 조정하는 과정을 중요한 장치로 활용하며, 관람자가 물리적 거리를 조정하며 새로운 감각을 경험하게 만든다. 작가는 선명하지 않는 환경에서의 시도가 오히려 시야 밖에 놓여있던 말과 몸을 불러오는 역설적 경험을 탐구하며, 가시화되지 않은 존재와 이야기에 대한 새로운 감각을 일깨우고자 한다.



〈사라지는 몸, 만져지는 말〉(인천아트플랫폼 C동 공연장, 인천, 2024) 전시 전경.
Exhibition view of Invisible Body, Tangible Word (Incheon Art Platform C Theater, Incheon, 2024).

영금영금

김아람은 우리 사회가 동물을 규정하고 분류하는 방식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를 비판적으로 드러내며,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다층적으로 탐구해왔다. 다큐멘터리와 퍼포먼스 같은 영상 매체를 통해, 사회에서 배제되거나 혐오 대상으로 여겨지는 ‘가축’, ‘유해 조수’, ‘생태계 교란종’과 같은 동물들과 인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다룬다. 특히 인간과 멀리 떨어져 있거나 무관해 보이는 동물들이 실제로는 인간 활동과 생태계에 깊이 얽혀 있는 역설적 관계에 주목하며, 인간과 비인간 사이의 불가피한 공존을 다시 탐구한다.

이번 오픈스튜디오에서는 생태계 교란종 ‘붉은 귀 거북’을 중심으로 한 리서치 영상과 거북류 동물의 외형적 특징과 물질성을 재구성한 드로잉을 선보인다. 이전 작업이 교란종과 관련된 제도적, 정치적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방식을 기록하는 데 집중했다면, 이번에는 그들을 조형적으로 재해석하며, 미학적 감각을 확장하는 새로운 접근을 시도한다. 이를 통해 특정 종을 단순히 위험 요소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그 존재를 새롭게 이해하고 조명하려는 제안을 담는다.



낙동강에서 포획된 외래종 거북(붉은 귀 거북 포함), 2024, 기록사진, 낙동강 일대 촬영. 사진: 교란종 헌터.
Invasive turtles (including red-eared slider turtles) captured from the Nakdong River, 2024, archival photograph, Nakdong River area. Photo: Invasive Species Hunter.

당신과 나의 기행기

고현지는 동양화와 판화 기법을 바탕으로, 일상에서 마주한 사건과 문학작품에서 받은 영감, 그리고 동아시아 전통 회화의 요소를 결합해 독창적인 이미지 세계를 구축해 나간다. 작가는 “삶에 대한 미스터리를 탐구하는 과정”을 여정(旅程)으로 비유하며, 현실과 환상이 교차하는 또 다른 세계를 시각적으로 구현한다. 이 주제들은 익숙하면서도 낯선 몽환적인 풍경과 인물들로 표현되며, 인간 존재와 삶에 내재된 복잡한 미스터리를 담아낸다.

이번 오픈스튜디오에서는 중국 작가 가오싱젠(高行健, GAO Xingjian)의 『영혼의 산』(1989)이라는 소설에서 영감을 받은 여정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 여정에서 관람자는 ‘당신’과 ‘나’라는 두 주체가 되어, 근원의 비밀을 품은 영혼의 산을 향하는 긴 여정을 경험하게 된다. 여정 속에서 일상의 이미지와 소설의 내러티브가 융합된 비현실적 요소들은 과거와 현재가 뒤섞인 기묘한 세계로 확장된다. 작품 속에서 각자의 해석을 통해 삶의 새로운 서사를 발견하고, 익숙한 장면에 숨겨진 낯선 순간과 마주하게 되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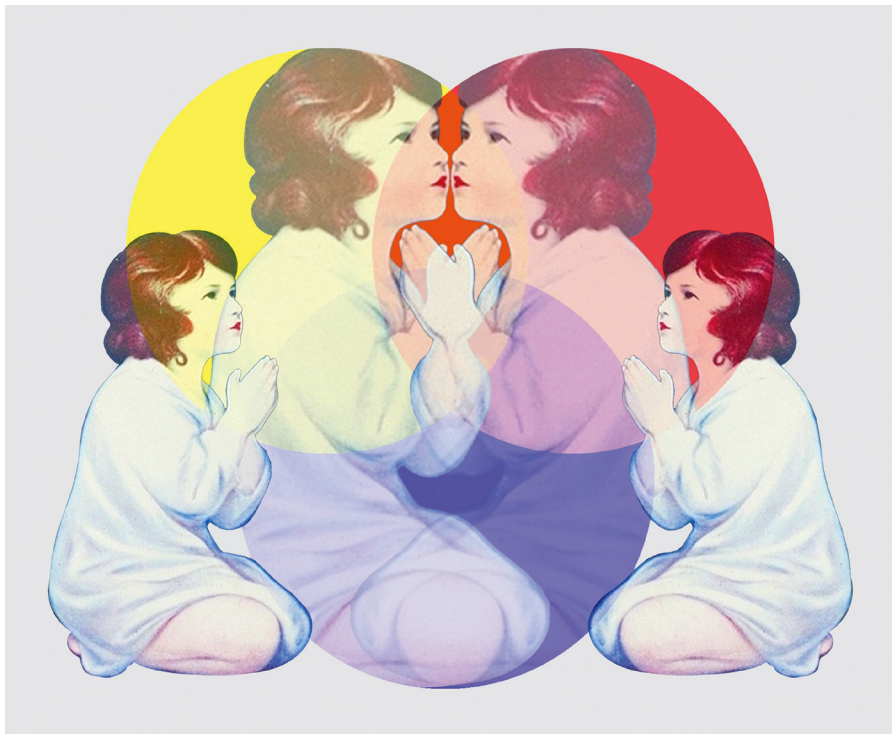


《두 개의 불씨, 숨겨진 그림자》(예술공간 서:로, 서울, 2023) 전시 전경.
Exhibition view of Two Embers, Hidden Shadow (ARTSPACE SEO:RO, Seoul, 2023).

무사히

희박은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온 믿음과 그로부터 비롯된 인간의 소망을 작업의 중심에 둔다. 인천 출신의 외조모 옥순이 답동 성당에 발을 들인 순간부터 시작된 작가의 여정은, 성장 과정에서 서양 종교, 유교적 제례, 그리고 일상적 미신이 혼재하며 변형되는 모습을 가까이서 경험하며 확장되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신앙과 문화의 혼합은 범신론적 기복 신앙의 형태로 드러나며, 작가의 작업에 중요한 영감의 원천이자 창작의 출발점이 된다.

이번 오픈스튜디오에서는 소망의 계보를 추적하는 작가의 탐구가 스튜디오 곳곳에 스며든다. 관람자는 스튜디오를 거닐며 보이지 않는 믿음과 소망의 시작점과 조우하고, 그 속에 깃든 내면의 흔적을 발견하게 된다. 작가는 단순한 종교적 상징을 넘어 믿음과 소망이 진화하고 내면화되는 과정을 공유하며, 관람자에게 새로운 해석과 성찰의 기회를 제안하고자 한다.



〈기도하는 세계〉, 2021, 아카이벌 피그먼트 프린트, 20.5 × 25cm.
Praying Trinity, 2021, archival pigment print, 20.5 × 25cm.

서해 5도

안보미는 인간 정체성과 공동체적 믿음이 상호작용하며 변모하는 방식을 꾸준히 탐구해왔다. 20대에 가톨릭이 국교인 오스트리아에서 지낸 경험은 종교와 개인 정체성이 집단 문화 속에서 교차하며 발현되는 과정을 면밀히 관찰할 기회를 제공했으며, 이는 작가의 작업에 문화인류학적 시선을 더해 서구와 비서구 사회의 젠더 인식을 탐구하는 동력이 되었다. 2018년부터 인도네시아 와양쿨릿(Wayang Kulit)과 일본 분라쿠(Bunraku) 인형극에서 영감을 받아, 시간성을 기반으로 한 서사를 회화적 표현으로 확장하는 실험을 이어왔다. 2022년 남태평양 사모아(Samoan Islands)에서는 '파아파피네(Fa'afafine, 생물학적으로 남성이지만 여성의 태도를 지닌 사람들)'를 인터뷰하며 인간 원형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품게 되었다. 그러나 복잡한 서사를 회화나 설치 같은 전통 매체로 표현하는 데 한계를 느끼며, 무대 예술을 통한 새로운 표현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오픈스튜디오는 이러한 탐구를 한층 심화하는 자리로, 인천의 섬과 해안가를 답사하며 수집한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섬들이 지닌 신앙적·역사적 유산을 시각적으로 구현한다. 작가는 현장 리서치와 시아노타입 기법으로 기록한 이미지를 통해 이 장소들이 간직한 서사를 스튜디오 공간에서 재구성한다.



〈죽어도 썩지않는다〉(보안 1942, 아트스페이스 보안 2, 서울, 2024) 전시 전경.
 Exhibition view of *Lasts Forever Even In Death* (BOAN 1942, ARTSPACE BOAN 2, Seoul, 2024).

마찬호 MA CHANHO

‘프로젝트 로스트’ 박물관

마찬호는 연극을 ‘분실물 보관센터(LOST AND FOUND)’에 비유하며, 사람들이 잃어버리고 잊어버린 기억과 감정을 무대 위에 구현하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관객이 극장에서 각자의 분실물을 발견하는 순간이야말로 그의 연극이 비로소 완성되는 시점이다.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설립된 프로젝트 로스트(PROJECT LOST)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상실과 회복의 과정을 시각적으로 재현하는 공간이자 연극의 사회적 역할을 새롭게 모색하는 장으로 기능한다.

최근 작가는 소설 『어린 왕자』를 현대적 시각으로 재해석한 연극 레퍼토리 시리즈 3부작을 제작했다. 이 시리즈는 현대 사회가 직면한 상실과 소통의 문제를 탐구하며, 기존의 서사와 상징을 새롭게 변형하여 동시대 이야기를 펼쳐낸다. 이번 오픈스튜디오에서는 첫 번째 작품 <흰 고개 검은 고개>와 두 번째 작품 <사랑하기 때문에>의 창작 과정을 공개하고, 인천아트플랫폼에서 집필한 마지막 작품 <II, 두 작가의 이야기>의 대본을 낭독 공연의 형식으로 선보인다. 스튜디오에 전시된 오브제와 대본은 작품의 서사를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작가는 도슨트로 참여해 관람객과 직접 소통하며 작품의 의미와 창작의 배경을 설명한다. 이를 통해 연극의 시간적 한계를 넘어 언제든지 재경험할 수 있는 예술의 가능성을 모색하며, 관객이 삶의 잃어버린 조각들을 재구성하는 여정을 함께하기를 기대한다.



〈‘프로젝트 로스트’ 박물관〉(유리 돔 속 붉은 장미, 나비 펜던트, 작가의 기억이 담긴 사진),
2024, 기록사진, 인천아트플랫폼 스튜디오 E-21, 인천.

"Project LOST Museum" (red rose in glass dome, butterfly pendant, photograph with artist's memories),
2024, archival photograph, Incheon Art Platform Studio E-21, Incheon.

송석우 SONG SEOKWOO

존 시스템

송석우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역동적인 상호작용에 주목하며, 그 속에서 작동하는 사회적 원리를 포착하고 드러낸다. 특히 몸짓 언어와 퍼포먼스를 매개로 사진 매체를 활용해 장면을 구성하며, 단순한 정지 이미지가 이야기가 담긴 내러티브로 확장되도록 한다. 개인의 서사에서 출발하며 관계와 상호작용의 방식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연출된 퍼포먼스는 사회적 의미와 구조를 연결하는 이야기로 발전해 나간다.

스튜디오의 타이틀인 ‘존 시스템(Zone System)’은 1939-40년경 프레드 아처(Fred ARCHER)와 안셀 아담스(Ansel ADAMS)가 고안한 사진 노출 및 현상 기법에서 영감을 받았다. 이 시스템은 사진의 명암과 톤을 단계별로 구분해 정확한 노출을 도출함으로써, 사진가가 의도한 표현을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개념이다. 이번 오픈스튜디오에서 작가는 지난 몇 년간 해온 다양한 프로젝트와 현재 작업 중인 프로젝트를 함께 선보인다. 관람자는 작가의 작업 여정과 단계별 변화를 따라가며 그의 예술적 진화를 체험하게 된다. 이는 단순히 완성된 작품을 감상하는 데서 나아가, 작업이 발전해온 궤적을 추적하고 앞으로의 가능성을 함께 상상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교토그래피》(호리카와 오이케 갤러리, 교토, 일본, 2023) 전시 전경.

Exhibition view of KYOTOGRAPHIE (Horikawa Oike Gallery, Kyoto, Japan, 2023).

EVENT 이벤트

IAP 챌린지 스티커 투어

〈2024 플랫폼 오픈스튜디오〉에는 2024년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청년예술가 스튜디오 지원사업〉의 입주 예술가 10명이 참여합니다. 스튜디오 10개실을 모두 방문하여, 회화, 조각, 설치, 사진, 영상, 공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작업하는 예술가의 작업을 만나보세요.

1. 진행기간

오픈스튜디오 기간(11/8~11/10)

2. 참여방법

- ▶ 원하는 순서로 10개의 스튜디오를 방문해 작품을 관람합니다.
- ▶ 각 스튜디오에 비치된 스티커를 스티커북의 지정된 위치에 붙여주세요.
- ▶ 10개 스튜디오 탐방을 끝낸 후, 완성된 스티커북을 현장 스태프에게 제시하면 기념품이 제공됩니다.

3. 스티커 투어 가이드

스튜디오 곳곳을 탐험하며 예술가들의 창작 세계에 한 발 더 가까워지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작업 과정에 대한 이야기와 예술적 여정을 담은 공간을 돌아다니며, 새로운 시각과 영감을 만나보세요. 인천아트플랫폼에서의 여정이 예술과 만나는 특별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IAP 포토부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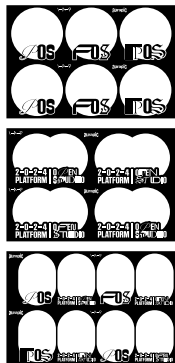
“예술 속에서 특별한 각도로 남기는 추억의 순간!”

인천아트플랫폼 오픈스튜디오의 감성을 담은 하이앵글 포토존에서 어안렌즈로 찍는 독특한 사진을 남겨보세요! IAP 포토존에서는 높은 각도의 시선과 왜곡된 렌즈 효과로 틀에 박힌 구도에서 벗어나 예술과 재미를 한 번에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즐겨보세요! 📷

- ▶ 독특한 포즈로 창의적인 나를 표현해 보세요.
- ▶ 어안렌즈의 왜곡된 시야 속에서 신선한 모습을 발견하세요.
- ▶ 찍은 사진을 SNS에 즉시 공유 하며 특별한 추억을 기록하세요!

#2024플랫폼오픈스튜디오 #2024PlatformOpenStudio
#인천아트플랫폼 #IncheonArtPlatform
해시태그로 SNS에 올려, IAP와의 소중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찍고 올리면, IAP 럭키드로우!

기억을 기록하고, 공유하며 선물까지!

오픈스튜디오에서의 추억을 남기고, 다양한 굿즈와 함께 행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여러분의 추억이 멋진 선물이 되는 순간, 〈2024 플랫폼 오픈스튜디오〉에서 만들어집니다.

매일 단 100명에게만 주어지는 'IAP 럭키드로우'의 행운을 놓치지 마세요!

1. 운영기간

오픈스튜디오 기간(11/8~11/10)

2. 운영장소

인천아트플랫폼 중앙광장

3. 참여방법

- ▶ 오픈스튜디오 현장에서 예술가들의 작업실과 인상적인 순간을 담은 사진으로 기록하세요.
- ▶ 촬영한 사진과 함께 아래 해시태그를 포함해 SNS에 업로드하세요.
#2024플랫폼오픈스튜디오
#2024PlatformOpenStudio
#인천아트플랫폼
#IncheonArtPlatform
- ▶ 인천아트플랫폼(@incheonartplatform) 계정을 태그하면 참여 완료!
- ▶ 업로드한 게시물을 현장 스태프에게 보여주고 럭키드로우 뽑기 기회를 얻으세요.
→ 매일 선착순 100명에게 뽑기 코인을 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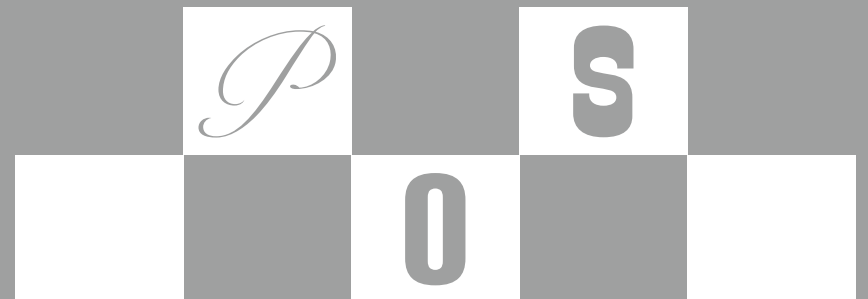
4. 기념품 안내

- 1등
IAP 전용 블랭킷
- 2등
흑백 사진 스케치 필름카메라 (27매)
- 3등
IAP 에코백
- 4등
액정 클리너

5. IAP 포토부스 & 럭키드로우, 모두 함께 즐겨보세요!

IAP 포토부스는 독특한 각도로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꼭 럭키드로우 이벤트에 참여하지 않아도, 가볍게 즐기며 재미있는 사진을 남겨보세요. 소중한 순간을 SNS에 기록하고, 럭키드로우에도 도전해보세요!

여러분의 추억이 특별한 선물이 되는 경험, IAP 오픈스튜디오에서 함께 만들어갑시다. 지금 바로 참여하고 특별한 기억을 간직해 보세요!



레고 굿즈를 드려요! - 만족도 조사 이벤트

<2024 플랫폼 오픈스튜디오> 관람 후 여러분의 특별한 의견을 만족도 조사에 남겨주세요! 만족도 조사에 참여한 선착순 100명에게 특별한 'IAP 레고'를 드립니다.

1. 진행기간
오픈스튜디오 기간(11/8~11/10) ▶ 매일 선착순 100명에게 특별한 'IAP 레고'를 증정합니다.

2. 참여방법
▶ 오픈스튜디오 관람 후, 제공된 QR코드로 만족도 조사를 완료합니다.
▶ 만족도 조사 완료 페이지를 현장 스태프에게 보여주고, 레고 굿즈를 받으세요!



IAP 푸드트럭

<2024 플랫폼 오픈스튜디오> 기간 동안 인천아트플랫폼을 찾아주신 분들을 위해 IAP 푸드트럭을 준비했습니다. 모든 스튜디오를 돌아보신 방문객분들께 음료와 다과를 제공합니다. IAP 오픈스튜디오 투어의 끝에 잠시 휴식의 시간을 갖으며 즐거운 여운을 남겨보세요.

1. 진행기간
오픈스튜디오 기간(11/8~11/10)

2. 참여대상
10개의 스튜디오와 연계 전시 관람, 중앙광장과 스튜디오 E-3의 상설 체험을 모두 체험한 방문객

3. 참여방법
▶ 10개의 스튜디오와 연계 전시 관람, 상설 체험을 모두 마친 후에 현장 스태프에게 이벤트존에서 확인증을 수령해주세요.
▶ 푸드트럭 스태프에게 확인증을 보여주고 따뜻한 음료와 달콤한 쥬러스를 받아보세요.
IAP 푸드트럭에서 만나는 달콤한 휴식과 함께 오픈스튜디오의 기억을 더 오래도록 간직해보세요.

IAP 챌린지 스티커 투어

E-1
정지현

E-2
김보경

E-4
소미정

E-5
양은경

E-7
김아람

E-8
고현지

E-9
희박

E-11
안보미

E-21
마찬호

E-22
송석우

IAP 중앙광장
[상설 체험] 코인 연기방

연계 전시
《레이더: 세상을
감각하는 눈》

스튜디오 E-3
[상설체험] 예술당,
소원을 빌어요!

기념품
교환권

푸드트럭
교환권

2-0-2-4 PLATFORM OPEN STUDIO

인천아트플랫폼

2024 플랫폼 오픈스튜디오

2024. 11. 8.(금) —

2024. 11. 10.(일)

인천아트플랫폼 E동 및 중앙광장

〈인천 청년예술가 스튜디오 지원사업〉

입주 예술가

고현지, 김보경, 김아람, 마찬호, 소미정,
송석우, 안보미, 양은경, 정지현, 희박,

2024 인천미술 올해의 작가_청년

엄지희

인천아트플랫폼

운영팀

이영리, 오병석, 조은주, 이은진, 이채리,
김경민, 황소영, 이태현, 백규연, 민동인,
허예린

시설

이영재, 서승택

보안

최명배, 임영균, 최영권

미화

박주희, 엄익진, 이상수

2024 플랫폼 오픈스튜디오

총괄 및 운영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영덕
인천아트플랫폼 운영팀장 이영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큐레이터 김경민
에듀케이터 이채리

연계 전시 기획

큐레이터 이태현

홍보 및 운영

황소영

영문번역

말돼지

그래픽 디자인

스파인 프레스

인쇄

에디션

주최

인천광역시

주관

인천문화재단, 인천아트플랫폼

© 인천아트플랫폼, 2024

수록된 글과 이미지의 저작권은
인천아트플랫폼과 해당 작가와
인천아트플랫폼에 있으며 저작자와
인천아트플랫폼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천아트플랫폼

22314 인천광역시 중구 제물량로
218번길 3(해안동 1가)

Tel. 032. 760. 1000

Fax. 032. 760. 1010

www.inartplatform.kr

facebook.com/inartplatform

instagram.com/incheonartplatform

youtube.com/incheonartplatform

